

효성, 화학섬유 차별화 전략 전격추진

9월30일부터 Preview In Seoul 참가 ... 생활 속 고부가 제품 선보여

효성(대표 이상운)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COEX에서 열리는 <Preview In Seoul> 전시회에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를 상대로 본격적인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전시회에서 효성은 원사 소재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효성의 원사를 이용하는 협력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지원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 가운데 최대규모의 공간을 확보해 협력기업들과 함께 참여해 리딩 컴퍼니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효성은 각종 차별화된 원사들로 만든 의류제품들을 전시하고 효성이 생산하는 카펫, 카 매트, 건축 외장재, PET병, 필름 등으로 꾸민 생활관을 따로 마련해 산업재 생산기업이 일상생활에서도 늘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PIS 전시회에 참가하는 효성의 주요 전시품목은 스판덱스, 나일론, Polyester 부문으로 구성된다.

세계 2위의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는 편안한 착용감과 부드러운 활동성을 제공하는 신축성 소재로 품질의 균일성과 후가공성이 뛰어나며, <마이판(MIPAN)>은 폴리아미드(Polyamide) 의류용 소재의 특성인 부드러운 촉감, 신축성, 활동성 등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차별화된 원사로서 고부가가치제품에 속한다.

Polyester는 흡한속건성 소재 <에어로 쿨>과 초극세사 <M2> 및 <M3>, 항균성 Polyester <Magic Silver> 등 고기능성, 차별화 제품으로 확장된 라인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9>